

진도군, 올해 세 번째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개최

사전예약 통해 도시소비자 40여명 고객 선정 군내 '소랑다래랑' 농장 초청 음식·수확 체험

진도군이 최근 도시 소비자를 초청, 직거래 팜파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팜파티는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된 40여명의 고객을 군내면 연산리에 위치한 '소랑다래랑' 농장으로 초청,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과 수확 체험을 함께 진행했다. 흥겨운 북놀이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참다래 수확 체험과 보물찾기로 코로나19로 지친 소비자들에게 청정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을 선물했다.

또 참다래 소스를 곁들인 꼬치와 골드 참다래를 시식하는 등 신선한 농산물을 즉석에서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근 농가들은 팜파티 준비와 진행을 도우며, 자신의 농산물을 함께 전시하고 시식코너를 운영, 우수한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등 팜파티 효과를 두배로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고객은 "코로나19로 지루한 생활을 하다 이렇게 넓고 공기 좋은 곳에 오니 너무 좋았다"며

"직접 체험도 하고 수확한 참다래를 즉석에서 시식도 하니 진도 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진도군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휴식과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랑다래랑' 농장은 친환경 축산에서 나오는 부산물 퇴비를 효소를 만들어 참다래와 미니밭호박 등을 재배해 네이비소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 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내일부터 '강진청자배 바둑대회' 개최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열띤 경쟁

장흥군 새내기 공무원 '우리지역 바로알기 투어' 나서

이들간 28명 대상... "군민이 행복한 장흥 만드는데 최선"



장흥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들 간 새내기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행정실무 교육 및 우리지역 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날은 업무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정현황, 복무, 친절교육, 새물, 기록물관리 교육 등을 진행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둘째 날은 해동사를 방문하여 안중근 의사 위패와 영정 앞에서 묵념을 마치고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흥의 미래를 이끌 역점 사업장과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 전망대 등을 둘러봤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 공무원은 "지역의 역사적 명소와 관광자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화상 상담 통해 해조류 제품 호주·말레이시아 첫 수출

청정바다에서 자란 해초로 만든 샐러드·국수 수출 길 올라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부진, 해외 인적 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운영했던 화상 수출상담회를 통해 첫 실적 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과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상수출상담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군데 기업(해정정, 세계로수산)에서 호주 시드니와 말레이시아

아 라왕으로 해조류 HMR제품인 해초 샐러드, 해초 국수를 약 1,500만원 어치 수출하게 됐다. 이는 군 수출기업들이 화상 상담 이후에도 바이어와 전자 메일을 통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얻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하였던 지난 3월부터 '상시 화상 수출상담회'를 운영하였고,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완도 수산 HMR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군 우수 수출기업 12곳이 참가한 '완도 수산 HMR 화상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62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5건의 업무 협약(MOU)과 120만 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도군과 완도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큰 이정표가 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주최 최초 HMR 화상 수출상담회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완도=김광수 기자

"땅끝 해남에서 부산까지" 국내최장 남파랑길 열린다

내일 개통식...90개 구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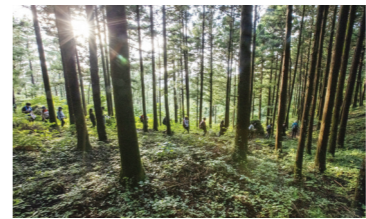
해남에서 부산을 잇는 국내 최장 걷기길인 남파랑길이 10월 31일 개통된다.

남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1,470km의 걷기여행길이다. "남쪽(南)의 쪽빛(藍) 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으로, 해파랑길에 이은 코리아돌레길의 두 번째 노선이다.

남파랑길은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90개 구간으로 조성됐다.

해남군의 남파랑길 포함 구간은 3개 구간 46km로, 북일면 내동~북평면까지 이어지는 해안길과 북평면 남장-송지면 미항사, 미항사~땅끝마을로 이어지는 숲길로 구성됐다.

구간 내에 달마산 달마고도의 일부 코스도 편입되면서 이미 전국 최고의 명품 걷기길로 부상한 달마고도 관광코스를 연계해 해남구간이 남파랑길 내에 최고의



인기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31일 11시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남파랑길 개통식이 열린다.

문화관광체육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따로 함께 걷는 따뜻한 쪽빛바다, 남파랑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통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최소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 후 행사 참여자와 함께 남파랑길 90코스 일부인 땅끝전망대~땅끝마을을 함께 걸어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남군에서는 걷기여행자를 위해 자체 걷기 행사도 마련한다. 걷기행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여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에서 시작하여 물고리까지 걷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해남군 관광과(061-530-5157) 또는 카카오톡 채널(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31일 '2020 강진청자배 바둑대회'가 강진 노인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청자배(고급부), 일반부(급수별로 구분), 9층 바둑왕(초등부) 및 오목왕(미취학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선수, 임원 및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당초 상반기에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기해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에 개최가 확정됐다.

그동안 민·관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코로나19 청정지역' 강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어도 대회장 환경정비 및 소독, 방역체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대회에는 군민만 참여하도록 하고 사전 참가 접수시 인후통이나 근육통 등 몸에 이상이 있을시 접수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강진군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10회 전라남도연맹회장배 풋살대회를 종합운동장, 청자구장, 풋살구장에서 개최하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실업-대학교 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승욱 군수는 "군민들의 협조 속에 강진군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대책 추진 속에 다양한 대회 및 전지훈련 개최로 선수와 임직원 이 강진에서 머무르면서 체류형 관광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